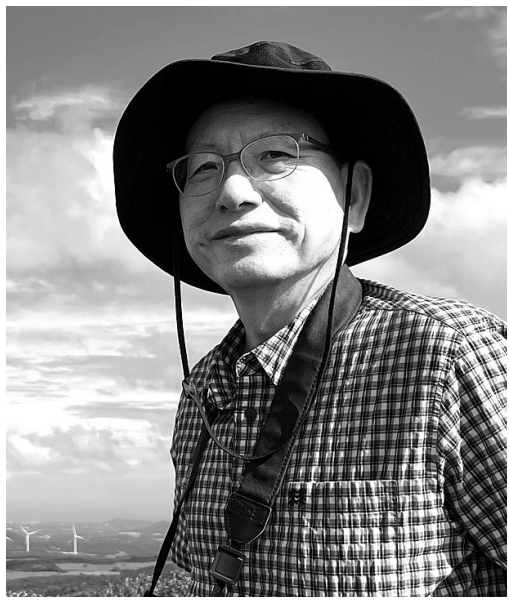


“전라도말로 몽클한 남도 서정 담았죠”

최승권 시인 두번째 시집

‘눈은 어머니를 꿈꾸며...’ 발간
유년기 기억 속 고향 모습 노래
교원 퇴직...시집 2권 출간 계획



최승권 시인

남도 서정과 이야기 서사는 남도인의 삶 속에 드리워진 풋풋하면서도 울컥한 인간미라 생각해요. 그 가운데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표준어에 의해 점차 사라져가는 전라도말, 광주입말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 고향의 입말을 매개로 기억의 재구성, 남도 서정을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눈은 어머니를 꿈꾸며
지상에 내려왔을까?

최승권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눈은 어머니를 꿈꾸며 지상에 내려왔을까?’ (문학들)을 펴냈다. 출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은 “광주에서 무등을 항상 우려러보고 말 많은 광주천에서 놀며 성장했던 저의 초중고 시기의 기억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래한 시집”이라고 말했다.

광주 출신의 그는 지난 2016년 등단한지 30년 만에 첫 시집 ‘정어리의 신탁(神託)’ (문학들)을 펴내 화제가 된 바 있다. 등단하고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뒤 시집을 발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뉴스다. 그러나 그 뉴스 이면에 가려진 사실은 ‘진짜 뉴스’를 합의한다.

시인에게서 저간의 곡절이 있었다.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5세대’ 동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89년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을 당했다. 이후 서울로 올라가 학원 강사를 하다, 몇 년 후 복직이 됐다. 그 사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업무에 치이다 보니 작정하고 시를 쓰기가 어려웠다. 한편의 작품집이 탄생하기까지 30년이라는 오

이런 작품집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은 어떤 시냐는 물음에 그는 ‘푸른 간장’을 꼽았다. ‘내내의 절친이었던 고 박정임씨를 추모한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제게 삶이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전라도 여인이자 우리 어머니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남을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묵묵히 실천으로 보여준 이름없는 성자였으니까요.”

오늘의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이름없는 성자’의 수고로 존재하는지 모른다. 주위에는 그런 ‘이름없는 성자’들이 많다. 거창한 업적을 남긴 이들이 아니더라도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공을 베푸는 이들이 모두 그런 이들이다.

“밥상 위 푸른 간장 속에는/ 낮이면 콩밭 때는 무자랑이 아닌 하나 살고 있다./ 늦저녁이면 마실 나온 동네 언니들과/ 뒤란 평상에서 풋풋 같은 딸을 키우는/ 도란도란 수다가 낭스름하게 자랄 무렵/ 담장 밑 수국꽃이 푸르스름하게도 벌어지는데/ 지지지도 않았다. 힘들지도 않았다./ 갑상선이 부여올라도 발일을 줄이지 않았다./ 여겨져 보 내고 나면 내 것은 별 것 없어야.”

위 시는 ‘푸른 간장’의 일부이다. 시인의 말대로 작품은 ‘갑상선이 부여올라도 발일을 줄이지 않’고 “여겨져 보내고 나면 내 것은 별 것 없”는 어느 순정한 촌부의 삶을 형상화했다. ‘무자랑이 아’가 보여준 아낌없는 삶, 타자를 위한 이타심은 남도 서정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

학교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시인은 아침마다 집 앞 푸른길을 1시간씩 걸으며 새로운 시상을 가다듬는다. 사회적 압박을 벗어난 흥분분함을 당분간 누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소 두 권 정도의 시집을 더 발표하고 싶다”며 “하나는 전남대 시절 80년 5월 전후를 초점으로 한 작품, 다른 하나는 깊은 수렁처럼 돼가는 분단 상황을 아파하며 지켜내는 시들을 창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박수근, 이중섭, 이응노, 이인성, 전혁림... 평소 미술에 문외한이라도 한번쯤 들어본 한국 미술의 거장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국내 미술계에서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상’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박수근 미술상은 지난 2016년 강원도 양구 출신의 국민화가 박수근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동아일보가 제정했다. 미술전문가들로 꾸린 운영위원회를 통해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회와 상금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1988년 조선일보가 주최로 제정된 ‘이중섭 미술상’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상기념전과 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부터 시작된 오지호 미술상 본상은 과거 세 차례나 수상자를 내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여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허백련·오지호 미술상은 ‘광주시 문화예술상’의 미술부문에 운영돼 ‘존재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미술, 문학, 국악 등에서 큰 업적을 남긴 박용철·김현승·정소파·허백련·오지호·임방울 선생을 기리기 위해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매년 선정·발표한다. 미술상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4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데, 이는 갤러리를 빌려 액자를 만들고 도록을 찍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다른 미술상들이 국립미술관에서 수개월동안 초대전을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갑다! 허백련·오지호 미술상

대구에도 지역 출신 서양화가 이인성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이인성 미술상’이 있다. 지난 2000년 한국 근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상금 5000만 원과 대구시립미술관 초대전을 지원한다. 그래서인지 이들 미술상의 공모에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작가들의 신청이 줄을 잇는다.

광주에도 ‘허백련 미술상’, ‘오지호 미술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위상은 다른 지역의 미술상과는 차이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오지호 미술상’이다. 변변한 특권과 부상이 없다 보니 지원자가 부족해 수상자를 뽑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최된 광주문화예술상이 대표적인 케이스. 전체 9개 시상부문에 김현승문학상, 허백련미술상 본상, 오지호미술상 본상, 임방울국악상 본상에 후보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 1992년

물론 미술상의 위상이 상금과 부상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닐 터. 하지만 오지호미술상이 국내 미술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의 창작 의욕을 키우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광주시가 올해부터 허백련 미술상과 오지호 미술상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예총에 이어 광주시에서 주관해 오던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부문을 허백련·오지호 미술상으로 ‘독립’시켜 수상자를 선정하고 미술관에서 기념전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만 이제라도 허백련·오지호 미술상의 권위를 높이는 정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갑다. 두 거장이 한국화단에 남긴 ‘위대한 유산’이 빛을 잃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브랜드로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문화·예총국장, 선임기자>

백석과 모딜리아니의 ‘슬픈 연가’

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 26일 인문학 콘서트

‘사랑’을 소재로 한 인문학 콘서트를 브런치처럼 오전에 즐긴다.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라는 주제로 선보이고 있는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올댓라브VI가 9월에도 이어진다. 이번 공연은 ‘모딜리아니와 백석, 그대를 위해 부르는 슬픈 연가’라는 제목으로 오는 26일(오전 11시) 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공연에 이어 이번 무대도 비극적 사랑 이야기로 채워질 예정이다. 경성의 모던보이 백석과 20세기 초 몽마르트르의 모더니스트 모딜리아니 두 사람이 그 주인공이다. 백석이 창작한 작품들의 로맨티시즘에 경도된

기생 ‘자야’의 비화를 해설가 김이군이 들려준다. 두 사람은 당시 신분격차를 느껴 남과 북으로 각각 갈라서 이별했다. 그러면서 자야가 남긴 “천억 재산이 그 사람(백석) 시 한 줄만 못하다”는 경구는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다. 또 모딜리아니는 무명화가였는데, 궁핍한 경제력에 모델 ‘잔느’와 이별 후 36세에 작고했다.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될 것이다”는 잔느의 말은 순애보적 사랑을 집착케 한다. 공연은 해설과 영상, 노래가 교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상적 사랑을 환기하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흐르는 눈물’, 김효근 ‘첫사랑’, 정환호 ‘꽃피는 날’ 등 총 8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백석

모딜리아니

소프라노 노선우, 메조소프라노 김하늘, 테너 정호석·김홍용이 노래하며 피아노는 김인애가 맡았다. 전석 1만원. 예매는 전당 누리집이나 티켓링크.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어린이 대상 인문·예술 등 융합 교육

ACC재단, 다음달 미디어아트·사운드·로봇틱스 분야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을 융합한 교육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문화예술 특화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이 그것. 오는 10월 운영되는 융합교육은 인문·예술을 강화해 미래 필수 역량을 함양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SK텔레콤AIX 슈퍼노바팀 ‘AI TECH LAB’ (10월 7-8일)을 비롯해, 서울대 예술과학센터‘폴리(POLY)사운드-아시아 전래동화 음악극’ (10월 14-15일), 포항공과대 경북씨그랜드센터 ‘극한환경 로봇 수업’ (10월

21-22일) 등이다. 이를 위해 ACC재단은 어린이문화원 체험관에 워크숍·사운드스튜디오 등의 융합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미디어아트, 사운드, 로봇틱스 등 분야를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SK텔레콤AIX, 서울대음대-서울대예술과학센터 등 국내 굴지의 기업·대학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강의를 진행한다. ACC재단 관계자는 “향후 일반 어린이에서 예술과학영재로 확대하는 등 특화 교육 콘텐츠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